

거조암 영산전 전면 보수한다

"5백 나한님 1년 휴가"

세계유일 화강암 나한상 보존 10억불사... 정부·교계 지원 절실

고려때 보조 지눌스님이 정해결사를 선안한 유서깊은 고찰 팔공산 거조암(주지 해해) 영산전(국보 제14호)이 전면 보수에 들어간다. 영산전은 지난 72년 해체보수 당시 외국산 소나무를 사용하는 등 낱길공사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해 습기가 차고 기둥이 썩는 등 훼손이 심각해져 전면적인 보수가 요구돼 왔다. 현재 해체작업에 들어간 영산전은 연말까지 기둥 일부와 기와교체, 바닥정비, 나한좌대신축 등의 보수와 방담 뒷편에 습기 방지를 위한 석축을 쌓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또한 영산전 보수가 끝나면 설법전과 선방도 차례로 건립한다. 영산전은 부처님 당시 제자들중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5백26 나한을 법계도에 따라 모신 곳으로 거조암 영산전은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암과 함께 오로지 4곳이 남아있는 고려목조건물 그 문화재적 가치가 높어 평가되고 있다. 영산전은 해리법사와 법화화상이 건립한 뒤 폐허로 방치돼 있다가 고려때 명나라 대목 진촌군이 중국식 목조건물로 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얼굴모습과 자세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뚜렷한 개성을 지닌 영산전 5백26나한상중 일부(왼쪽). 국보 14호 거조암 영산전(오른쪽)이 심각한 훼손으로 전면 보수에 들어갔다.

화상이 조성한 석가여래삼존불과 상인스님이 그린 영산회상도도 봉안되어 있다. 영산전안에서 5백26배를 하거나 나한상 하나하나에 3배를 모두 마치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구전돼 거조암에는 나한기도의 영험을 성취하려는 불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보수불사에는 총 1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현재 국비보조가 3억원에 불과해 사격(寺格)이 크지 않은 거조암에서는 불사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리소속책임자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며 "거조암은 역사적으로나 불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지인 만큼 이번 보수에 정부와 불교계 모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동참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팔공산=이윤호 기자

종단소식

초파일 봉축 독자추진 진흥회 25일까지 결정

종단진흥회(회장 일공)는 지난 5일 천태종등 11개 종단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개최하고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진흥회 단독추진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이번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조계종위주로 봉행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오는 25일까지 시간을 두고 진흥회의 부처님오신날 행사 개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고 결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천태종은 진흥회 별도 부처님오신날 행사 개최안에 반대해 천태종의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태고종 보현도량 총회

태고종 보현도량은 지난 4일 포천 기림사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불교와 종단발전 위한 세미나 개최 △사회봉사 활동강화 등 97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총회에서는 신임의장에 무위(상봉암주지) 부회장에 법현(전 태고종 총무부장) 총무부장 법인(법회연구원) 재무부장 무불(백암사 교무국장) 감사 재홍(성주암 총무) 스님들을 선출했다.

밀교문화대학 1기 입학

진각종(총무원장 락해)은 오는 12일 오후 2시 흥인원 대강당에서 창종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는 밀교문화대학 1기 입학식을 개최한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일 개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해춘)은 지난 2일 통영시 실내체육관에 2천5백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가졌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개원법회가 지난 2일 통영시내체육관에서 2천5백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해제프로

BBS '옛가락 우리노래'

"노오드를 가아양 버인, 보을 버어어들..."

지난 2월 18일 불교방송 '옛가락 우리노래(PD 한지운)'의 목요일 '우리가락 배우기' 코너 녹음 시간. 10여 명의 보살들이 이춘희씨(경기민요 준보유자)의 장구장단에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따라부르는 스튜디오에는 벌써 봄내음이 가득하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9시 5분에 방송되는 '옛가락 우리노래'는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불교 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일 개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해춘)은 지난 2일 통영시 실내체육관에 2천5백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가졌다.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저마다 이미 갖추고 있는 제 뿌리를 믿고 가는 공부를 해야한다"며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어 일체만물은 하나로 통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은 통영시 도천동 도심에 있으며 연건평 50평 규모다.

해제프로

BBS '옛가락 우리노래'

"노오드를 가아양 버인, 보을 버어어들..."

지난 2월 18일 불교방송 '옛가락 우리노래(PD 한지운)'의 목요일 '우리가락 배우기' 코너 녹음 시간. 10여 명의 보살들이 이춘희씨(경기민요 준보유자)의 장구장단에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따라부르는 스튜디오에는 벌써 봄내음이 가득하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9시 5분에 방송되는 '옛가락 우리노래'는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불교 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청취자와 함께 전통문화 '파수'

KBS, MBC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국악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사에서 '옛가락 우리노래'는 지금까지 남도민요, 서도민요, 경기민요 등을 청취자와 함께 배우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한지운PD는 "국악관련 공연소식과 판소리의 명인 집중소개, 판소리 순례, 전통악기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일 개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해춘)은 지난 2일 통영시 실내체육관에 2천5백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가졌다.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저마다 이미 갖추고 있는 제 뿌리를 믿고 가는 공부를 해야한다"며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어 일체만물은 하나로 통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은 통영시 도천동 도심에 있으며 연건평 50평 규모다.

해제프로

BBS '옛가락 우리노래'

"노오드를 가아양 버인, 보을 버어어들..."

지난 2월 18일 불교방송 '옛가락 우리노래(PD 한지운)'의 목요일 '우리가락 배우기' 코너 녹음 시간. 10여 명의 보살들이 이춘희씨(경기민요 준보유자)의 장구장단에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따라부르는 스튜디오에는 벌써 봄내음이 가득하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9시 5분에 방송되는 '옛가락 우리노래'는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불교 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청취자와 함께 전통문화 '파수'

KBS, MBC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국악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사에서 '옛가락 우리노래'는 지금까지 남도민요, 서도민요, 경기민요 등을 청취자와 함께 배우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한지운PD는 "국악관련 공연소식과 판소리의 명인 집중소개, 판소리 순례, 전통악기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2일 개원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해춘)은 지난 2일 통영시 실내체육관에 2천5백여 불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가졌다.

한마음선원 원장 대행스님은 이날 법문을 통해 "저마다 이미 갖추고 있는 제 뿌리를 믿고 가는 공부를 해야한다"며 "깊고 간절한 마음은 닿지 못하는 곳이 없어 일체만물은 하나로 통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통영지원은 통영시 도천동 도심에 있으며 연건평 50평 규모다.

해제프로

BBS '옛가락 우리노래'

"노오드를 가아양 버인, 보을 버어어들..."

지난 2월 18일 불교방송 '옛가락 우리노래(PD 한지운)'의 목요일 '우리가락 배우기' 코너 녹음 시간. 10여 명의 보살들이 이춘희씨(경기민요 준보유자)의 장구장단에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따라부르는 스튜디오에는 벌써 봄내음이 가득하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9시 5분에 방송되는 '옛가락 우리노래'는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속에 담긴 이야기까지 담아내는 불교 방송의 장수 프로그램.

청취자와 함께 전통문화 '파수'

KBS, MBC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국악프로그램이 없는 방송사에서 '옛가락 우리노래'는 지금까지 남도민요, 서도민요, 경기민요 등을 청취자와 함께 배우며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더욱 그 빛을 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한지운PD는 "국악관련 공연소식과 판소리의 명인 집중소개, 판소리 순례, 전통악기

방송가 소식

32억4천만원 청약

불교TV 5차 주식공모

불교TV 제5차 불자주식공모가 32억4천여만원으로 청약마감됐다. 당초 80억원을 목표로 시작했던 이번 주식공모는 공모기간 동안 추가폭락과 불교방송 공공형법사건, 경제불황 등의 악재가 겹쳐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마감돼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불교TV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과 치열한 경쟁속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 마련과 사부대중의 지속적인 관심유발을 위해 후원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불교TV 3기 주주총회

불교TV 제3기 주주총회가 오는 13일 오후 3시 잠실 향군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96년도 영입보고 및 감사보고에 이어 정관임부 변경 및 임원선임의 건등이 결의될 예정이다.

14일 BBS 이사회

BBS교육방송은 오는 14일 사원의 천국 발리성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열반을 꿈꾸는 섬 발리'를 방송한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것에 영연이 있다고 믿고있는 발리인들과 아름다운 발리의 자연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경리사건 조사위' 결성

조계종 중앙종회 사회분과위원회(위원장 여연)는 지난 4일 사회분과 회의를 열고 불교방송 경리사건 재조사를 위한 '중앙종회 사회분과위 불방 공금회계법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했다.

조계종 중회 사회분과위

사회분과위는 또 조사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공인회계사 2인을 전문위원으로 영입, 불교방송 대책위원회(위원장 영배)와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담), 그리고 조계종 문화부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전면적인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여연스님은 "오는 19일까지 1차

적인 조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종회이전까지 이번 조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면서 "투명한 진상

규범을 통해 불교방송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佛放사건 진상추구

실천승가회 기자회견

실천승가회(공동대표 지선, 청화)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교방송 경리사건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계종단과 종회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실천승가회는 "지금은 사건을 미봉책으로 수습할 때가 아니라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불교방송 경영의 근본적인 개혁이 선행될 때 이번 사건의 진정한 수습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BBS 이사회

BBS교육방송은 오는 14일 사원의 천국 발리성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열반을 꿈꾸는 섬 발리'를 방송한다.

교육방송 14일 방영

이 프로그램은 모든 것에 영연이 있다고 믿고있는 발리인들과 아름다운 발리의 자연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또한 해발 3천미터에 위치한 배

사기 힌두 사원등 발리에 산적해 있는 1천여 사원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생활이 곧 예술자 신앙인 발리인들의 삶을 소개한다.

근간 불교방송에서 발생한 시끄러운

사건들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 불자들이라면 지난 2일 열린 제9회 한국방송프로듀서 연합회 시상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몹시도 씁쓸했을 것이다.

기록과 평화방송

이 몇 개씩의 상을 수상하는 데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은 '꾸즈대장경' 단 한 프로그램이 본선 후보에 올랐을 뿐이다. 특히 평화방송의 수녀진행자가 프로듀서들이 뽑은 올해의 진행자상을 받는 광경에서는 정목스님을 연상시킨 불자들도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지는

물라도 애써 만든 프로그램이 엄청난 심사과정을 거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들 자들의 큰 자랑이요, 불교교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방송 70년과 BBS 7년

올해는 1927년 첫 라디오방송을 시작했던 해이다. 불교방송도 올해 50주년이다. 우리나라 70년 방송사가 그려왔듯이 불교방송의 지난 7년도 회망과 좌절, 발전과 위기의 과정을

두루 거쳐왔다. 그러나 최초의 부

처님 방송이라는 사명감과 기쁨으로 출발했던 불교방송의 오늘 모습은 상처투성이다. 안타깝다.

오늘날 방송매체는 국민의 정서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불교방송도 불자들의 신생활에 크나큰 영향을 준다. 그만큼 우리들

승의 불교방

송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크다.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송도 시장경제 체제에 들어가 문화전쟁을 겪을 날이 머지 않았다. 불교방송이 과거의 상처와 오명을 벗어나고 부처님 방송으로서의 확고한 내실을 다지는 데 전력해야 할 때가 왔다.

이 은 자

〈취재2부 기지〉

한 우리나라 방송이 70년이 되는 해이다. 불교방송도 올해 50주년이다. 우리나라 70년 방송사가 그려왔듯이 불교방송의 지난 7년도 회망과 좌절, 발전과 위기의 과정을

전화주문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료번호 762665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 (051)633-6412~3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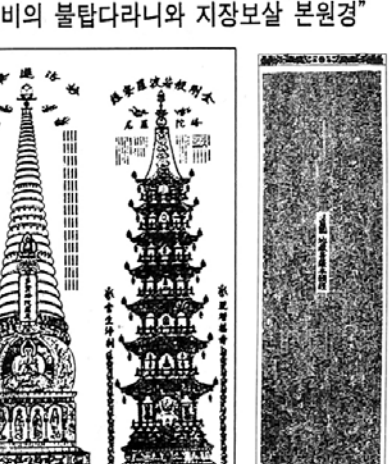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

"불탑다라니를 사용하면 실제로 불가사의한 영험력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佛塔다라니로서 스님과 불자들이 실제 겪었던 영험 사례집 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신비의 불탑다라니와 지장보살 본원경"



■불가신 분들에게 믿어주고 믿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던 금강경 탑다라니. 이 불탑다라니를 현세에서 우리가 사용한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극락을 찾고 소원을 성취하고 인제재물을 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 스님들이 방편으로 시도해보았던 불탑다라니에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가? 이 책상에는 우리가 일찍이 신상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 불가사의한 일들은 규명하고자 하기보다는 한가닥 의심없이 믿고 행함으로써 실제로 체험해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을 전심으로 믿거나, 사용해서 불보살님의 위신력을 믿는 불자라면, 부처님의 위대한 경전을 100% 경건정신을 사용하여 조정한 금강경 신탑다라니와 요법원화경 다투보다라니, 지장보살본원경 사경본의 위신력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300여 사람에서 주로 스님들을 통하여 불자들에게 보급되어온 본회의 불탑다라니는 사용한 불자들의 대부분이 한결같이 그 불가사의 하고도 신비스러운 영험력을 직접 체험 하였고 스님들이 전해오셔서, 본회에서는 그 사례들 중에서 대략적인 것만 모아 책자를 만들어 인연하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스님들께 : 스님용 불탑다라니 사용방법책자, 신도용 영험집 책자, 지장경 사경본을 이용한 조상대친족연속 일체지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천도방법, 수자영가 불명짓는법 등이 수록된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포교차원에서 신도들에게 부처님의 위신력을 보여주어 불심을 길게하는데 일조하고, 재앙과 재난을 예견하여 그것을 피하게고, 소멸시켜주는 방편으로 사용해주시고, 또한 조상령과 수자영가인 낙대어, 자연유산어, 사신아들의 원혼들을 불명을 지어 위패를 안치시켜주셔서 확실하게 천도시켜주는 방법, 등을 제시해 드림으로서 다스나마 불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불자님들께 : 불탑다라니를 사용하여 실제로 일어난 영험사례집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 이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
2. 대원일생을 돈 화부도
3. 각종질병이나 원인모를 병으로 고통받는 분
4. 정신질환이 있는 분
5. 사안이 부진하거나 실패한 분
6. 가정불화를 겪고 있는 분
7. 살해나 관재가 있는 분
8. 집안이 이상하게 시끄럽거나 잠안불리는 분
9. 고신나 승진시험을 앞 둔 분들을 꼭 받아보십시오.

권익이 되실 것 입니다.

■고급 백색종이 천 위에 100% 순수 양질의 경면주사만 사용하여 조성

규격 : (가로)63cm x (세로) 160cm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회장 혜전)**

부설 : 바라밀건강연구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 (0342)706-3060

청소년 심성교육을 위해 집집마다

자비동자모시기 운동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 청소년은 우리들의 후계자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밝고 맑은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멋스러운 심성을 갖도록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의 할 일입니다. 책상, 응접실 벽에 걸린 한 점의 자비동자를 보고 사랑의 꿈을 키우고 희망을 갖고 사회를 위해 자비를 포용할 수 있는 불교청소년이 되어 사회가 필요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좋은 가정을 꾸미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끄는 가정 보살은 부모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훌륭한 청소년을 키우는데 바치기위해 효종스님(바라밀포교위원장) 온갖 정성을 다하여 청순녀들의 심성교육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여기서 모여진 성금은 전액 청소년회관 건립기금으로 사용되게 원을 세웠습니다.

성장하는 아들, 딸들에게 밝은 얼굴, 밝은 모습, 아름다운 마음,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성원하오니 자비동자 한 점씩 모시기 운동에 꼭 동참을 바랍니다.

전화주문서 우편배달해 드립니다.

각 은행 농협 우체국
지료번호 7626655 바라밀

불자간병인을 원하십니까?

유료간병인을 쓰실분은 대한불교 바라밀 간병인협회로 연락주십시오.

고통받는 환자를 부처님 공경하듯 정성껏 간호해 드리겠습니다.

주 최 : 대한불교 청소년 교화연합회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 (051)633-6412~3

부설 : 바라밀간병인 협회

자비동자 한점 20,000원

부산지부 : (051)633-6412~3

FAX : (051)631-3884